

조선후기 향촌사회 科詩 창작 一考*

- 『科賦抄』所在 『醉翁亭記』 대상 작품을 중심으로 -

金景**

目 次

1. 들어가며
2. 『科賦抄』에 대하여
3. 『醉翁亭記』의 科詩化 양상
4. 나가며

| 국문초록 |

본고는 『科賦抄』에 대한 소개와, 이를 통해 조선후기 향촌사회 科詩 창작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과부초』의 편찬자는 불분명하나, 수록된 작가 및 소장처 등을 고려했을 때 19세기 영남지역 科詩選集임을 파악하였다. 『과부초』의 특징은 수록된 대부분 작품의 試題가 『古文眞寶』 산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본론에서는 歐陽修의 『醉翁亭記』를 대상으로 한 작품을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과부초』는 문예적 취향보다 습작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영남지역 문인의 과시를 선집하여 제작한 사실만으로도 공유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문예적 취향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울러 『醉翁亭記』와 같은 특정 작품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9S1A5C2A02082732), 2021년 동방한문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을 통해 과시를 습작하였다는 것은 講經에 집중하였던 향촌사회에서 製述과 관련된 일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科賦抄, 科詩, 영남지역, 과시선집, 醉翁亭記.

1. 들어가며

科詩는 科賦와 함께 조선시대 과거제도에서 식년시 이외 각종 시험에 빠지지 않고 출제된 문체이다. 조선초기 과시는 古詩와 비슷하여 일정한 틀이 마련되지 않았고 조선후기에도 과시의 正格은 문헌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聯를 1句로 계산한 36隻, 18韻을 말한다.¹⁾

조선후기까지 과시의 형식이 엄격히 준수되지 않았던 이유는 시험을 통한 변별력보다 향촌사회의 소외를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회통합기능의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 일면도 있지만,²⁾ 그만큼 과시가 특정 계층과 지역을 넘어 성행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한다. 특히 과시가 성행했던 18세기 이후 科詩選集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試券을 모은 것뿐만이 아니라 등재하지 못한 작품이라도 습작이나 문예적 취향을 목적으로 제작되었기에, 그 체제와 양상은 더욱 다양성을 보이며 전국적으로 轉流되며 필사되었다.

지금까지 과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도와 운영, 그리고 합격자 등용에 초점을 두었고, 향촌사회의 경우 주로 四書疑와 같은 생원시에 집중하였다.³⁾ 물론 『金秉璜日錄』과 같은 자료를 통해 19세기 향촌 문인들의 과거

1) 李炳赫(1986), 67~70쪽; 남궁원(2003), 183쪽; 이상욱(2005), 3쪽 참조.

2) 박현순(2012), 5~17쪽; 장유승(2013), 32~33쪽 참조.

3) 대표적으로 『四書疑抄』(국사편찬위원회 소장7)라는 자료를 통해 19세기 때 영남 지역에서 이러한 필사본 과문선집류를 활발히 냈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시험 준비나 과목별 출제 문제의 문체적 특징에서부터 문인들의 지적 토대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면모를 살필 수 있었지만⁴⁾, 향촌사회에서 과시 창작 경향이나 과정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하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科賦抄』(고려대 소장)는 과시가 성행하며 형식적 체재가 성립하였던 18세기를 지나 19세기 무렵 편찬된 필사본이며, 경화세족과 거리감이 있는 향촌 사회 한미한 작가의 작품이 수록된 과시선집이다. 『과부초』의 특징적인 면모는 대부분 작품이 『古文眞寶』의 산문을 科詩化하였다는 데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고문진보』는 한·중·일의 대표적인 학습 교재로서 자국의 학문적 자장에서 수용되고 流傳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에 유입되면서 지금껏 널리 읽혀진 詩文選集이자, 학습상의 중요 讀物로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더욱이 『고문진보』는 지방 학생들에게 唐宋古文을 학습하는 교재로 사용되었기에⁵⁾ 韓愈나 歐陽修와 같은 주요 작가의 작품을 試題로 삼아 과시를 준비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과시 창작에서 산문의 특정 구절을 시제로 삼는 양상은 일반적이다. 다만, 주요 시제는 당대 국가가 인재에게 요구하는 현실 감각을 문학 및 학문의 내용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이념이 담겨 있기에⁶⁾ 주로 역사서나 경서에서 출제되는 빈도가 높다. 그럼에도 『과부초』에서는 문학 작품을 시제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 작품을 여러 차례 시제로 삼은 면모가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구양수의 『醉翁亭記』는 무려 7번에 걸쳐 시제로 삼았다. 이러한 점은 창작에서 특정 작품을 통해 과시를 학습하였으며, 이와 함께 『과부초』가 습작이거나 문예적 취향이 다분한 과시선집임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4) 2000년대 이후 일기나 편지 고문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향촌사회의 과시시험 준비에 대한 성과가 등장하였다. 전경목(2007); 이지은(2012); 최은주(2013).

5) 강찬수(2008), 333~340쪽 참조.

6) 심경호(2020), 61쪽.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과부초』에 수록된 작품 중에서 대표성을 지니는 『취옹정기』를 대상으로 작품들을 비교·대조함으로써 특정 산문이 科詩化되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부초』의 성격과 함께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 과시 창작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科賦抄』에 대하여

조선시대에 작성된 科文은 대개 문체에 따라 科詩·科表·科賦·科策 등으로 분류한다.⁷⁾ 『科賦抄』는 과시선집임에도 책명이 ‘科賦’로 되어 있는데, 이때의 賦는 문체의 작품임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科文 양식으로 지어진[賦] 시’ 작품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賦는 賦詩라고 하여 시를 ‘짓다’는 의미가 있고 律文으로도 흔히 ‘詩賦’를 통칭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편찬자나 후대 표지를 교체하면서 발생한 실수일 수도 있으나, 조선 후기 과문선집의 서명에서 詩와 賦를 혼용한 필사본이 다수 확인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과부초』의 서명에 대한 성격도 이 같은 양상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부초』(만송 D5 A53)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과부초』 표지

<표 1> 『과부초』 서지사항

사항	내용
서명	科賦抄
저자사항	南隱(號)
판사항	筆寫本
발행사항	三洞精舍, 壬午
형태사항	1冊 ; 22.5 x 13.9 cm.

7) 이상욱(2015), 9~10쪽 참조.

위 <표 1>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저자와 발행사항이다. 저자는 南隱, 발행처는 三洞精舍, 발행 연도를 壬午라 한 것은 冊末 襟接紙의 기록에 의한 것인데 그 내용은 “壬午季夏, 三洞精舍南隱抄. 【凡五十八張一百十六首, 末大古風二首.】”이다. 이를 통해 『과부초』의 대략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三洞精舍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南隱’이라는 호, 수록된 작가의 지역, 그리고 고려대 만송문고에 소장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편찬자는 權致鳳(1810~1871, 居 聞慶)·司空嶽(1816~1895, 居 軍威)·呂中龍(1856~1909, 居 金陵) 등으로 추정된다.⁸⁾ 아울러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南隱先生遺集』(呂中龍 著, 石印本 2冊), 『南隱遺稿』(司空嶽 著, 石印本 1冊), 『南隱庭拾』(李容教 著, 筆寫本 1冊) 등의 자료를 통해 李容教(?~?)도 편찬자로 거론할 수 있다.⁹⁾

그런데 『選四書』(고려대 만송A11 A21)도 南隱이 편찬한 것이다. 冊末 襟接紙에 “此篇卽四書中要旨之抄也……庚辰冬南隱書.”라는 기록에서 庚辰年은 1820년 혹은 1880년이므로, 이를 통해 본다면 앞서 나열한 인물 중에서 權致鳳은 편찬자가 될 수 없다. 아울러 『과부초』의 편찬 연도는 추정되는 편찬자의 생몰년을 고려한다면, 壬午年은 1882년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과부초』의 편제이다. 앞서 ‘凡五十八張一百十六首, 末大古風二首’라는 기록을 통해 이 책은 총 58장으로 116수가 수록되어 있고, 말미 古風인 2수를 더해져 전체 작품은 118수임을 알 수 있다.¹⁰⁾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록된 작품의 제목을 차례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과부초』의 수록된 작가 중 지역명이 표기된 작가는 金鏞인데, 제목 아래에 ‘順興’이라는 거주지를 밝혀 놓았다. 順興은 현재 경상북도 영주이다. 또한, 고려대 만송문고 자료 기증자 金在澈과 그의 선친 만송 金完섭은 안동 풍산 김씨 문중 인물이다.

9) 한국국학진흥원·영남유교문화진흥원 엮음(2008).

10) ‘末大古風二首’에서 ‘末大’의 의미가 불분명하다. 문맥상으로는 ‘末入’을 잘못 쓴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는 ㅅ으로 잘못 썼다가 一을 덧붙여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표 2> 『과부초』 목차 및 출처 비교

연번	제목	원제목	원작가	비고
1	青青水中蒲 【古文前集, 順興居金鏞八十首】	青青水中蒲	韓愈	金鏞1~80번까지
2	見王於北亭猶高山深林龍虎變化不測 【退之】	殿中少監馬君墓銘	韓愈	
3	盛德之興山高日昇	大唐中興頌	元結	
4	韓子文如長江大河渾浩流轉魚鱉蛟龍萬怪 惶恐 【昌黎老蘇文】	上歐陽內翰書	蘇洵	
5	與書十二郎歎年未四十視茫茫髮蒼蒼 【昌黎】	祭十二郎文	韓愈	
6	衡湘以南爲進士者皆以子厚爲師	柳子厚墓志銘	韓愈	
7	伯樂一過冀北之野馬群遂空 【送溫造處士序】	送溫造處士序	韓愈	送溫造處士序1
8	黃帝在位百年 【佛骨表】	論佛骨表	韓愈	
9	燒船與車延之上座 【昌黎送窮文】	送窮文	韓愈	
10	匠氏醫師答笑于列者 【進學解】	進學解	韓愈	進學解1
11	麟之出必有聖人在乎位 【獲麟解】	獲麟解	韓愈	
12	冊尊南海神爲廣利王 【南海神廟碑】	南海神廟碑	韓愈	南海神廟碑1
13	微二子亂臣賊子接跡於後世 【伯夷頌】	伯夷頌	韓愈	
14	海於天地間爲物最鉅 【南海神廟碑】	南海神廟碑	韓愈	南海神廟碑2
15	昌黎韓愈聞其言而壯之 【送李愿歸盤谷序】	送李愿歸盤谷序	韓愈	送李愿歸盤谷序1
16	聞其言而壯之與之酒而爲之歌	送李愿歸盤谷序	韓愈	送李愿歸盤谷序2
17	若與燕趙豪雋之士相爲叱咤	送董邵南序	韓愈	
18	山林者士之所獨善自養而不憂天下者之所能安 【上宰相求薦書】	上宰相第三書	韓愈	제목 오류
19	喜怒哀樂無不於草書焉發之 【送高閑上人序】	送高閑上人序	韓愈	
20	大修孔子廟 【羅池廟碑】	柳州羅池廟碑	韓愈	
21	天池之濱大江之濱日有怪物 【上宰相求薦書】	應科目時與人書	韓愈	제목 오류
22	蔡卒三萬五千不樂爲兵願歸爲農者十九 【平淮西碑】	平淮西碑	韓愈	平淮西碑1
23	楚大國也其亡也以屈原鳴 【送孟郊東野序】	送孟東野序	韓愈	送孟郊東野序1

24	命魯國孔公以殿南服【南海神廟碑】	南海神廟碑	韓愈	南海神廟碑3
25	天以唐克肖其德聖子神孫繼繼承承於千萬年敬戒不怠【平淮西碑】	平淮西碑	韓愈	平淮西碑2
26	前所稱爲天下賀後所稱爲吾致私怨【送石洪處士溫造處士序】	送溫造處士序	韓愈	送溫造處士序2
27	遂開明堂坐以治之【平淮西碑】	平淮西碑	韓愈	平淮西碑3
28	衡之南八九百里地益高山益峻水清而益駛【送廖道士序】	送廖道士序	韓愈	送廖道士序1
29	意必有魁奇忠信材德之民生其間【送廖道士序】	送廖道士序	韓愈	送廖道士序2
30	朝廷之士引領東望若慶星鳳凰之先覩爲快【寄少室山人李渤書】	與少室李拾遺書	韓愈	
31	天將和其聲使鳴國家之盛【送孟郊東野序】	送孟郊東野序	韓愈	送孟郊東野序2
32	伯樂一顧價增三倍【求薦書】	爲人求薦書	韓愈	
33	爲節度之三月求士於從事之賢者【送石洪處士序】	送石洪處士序	韓愈	
34	使四方後代知朝廷有直言極諫之臣【諫臣論】	爭臣論	韓愈	
35	國子先生晨入太學招諸生立館下誨之【進學解】	進學解	韓愈	進學解2
36	無患有司之不公【進學解】	進學解	韓愈	進學解3
37	遂收拾遺文合若干卷爲昌黎先生集【昌黎集序】	昌黎文集序	李漢	
38	里門夜開	平淮西碑	韓愈	平淮西碑4
39	江南多登臨觀之美而滕王閣獨爲第一	新修滕王閣記	韓愈	
40	祀之之歲風災熄滅人厭魚蟹五穀胥熟【南海神廟碑】	南海神廟碑	韓愈	南海神廟碑3
41	問養樹法得養人法【子厚種樹郭橐駝傳】	種樹郭橐駝傳	柳宗元	
42	滿院花開不似貧【雍陶，閉門客到常疑病】	閉門客到常疑病	雍陶	
43	聲在樹間【秋聲賦】	秋聲賦	歐陽脩	秋聲賦1
44	山水之樂得之心而寓之酒【醉翁亭記】	醉翁亭記	歐陽脩	醉翁亭記1
45	朝而往暮而歸四時之景不同而樂亦無窮	醉翁亭記	歐陽脩	醉翁亭記2
46	太守與客來飲於此	醉翁亭記	歐陽脩	醉翁亭記3
47	乃長鳴於百世【鳴蟬賦】	鳴蟬賦	歐陽脩	
48	乃邦家之光非閭里之榮【相州畫錦堂記】	相州畫錦堂記	歐陽脩	

49	環滁皆山	醉翁亭記	歐陽脩	醉翁亭記4
50	武王之臣三千人爲一大朋而周用以興【朋黨論】	朋黨論	歐陽脩	
51	作春秋尊中國賤夷狄然後王道復明	本論下	歐陽脩	제목오류
52	立乎殿階之下與天子爭是非者諫官【永叔上范司諫書】	上范司諫書	歐陽脩	
53	醉翁亭記名字如八疊屏風美人出	醉翁亭記	歐陽脩	醉翁亭記5
54	翰林學士歐陽脩得其所著書二十二篇獻諸朝【蘇明允神道碑】	蘇明允哀辭	曾鞏	
55	其狀無常常出於有道之國【天文誌】	天官書	司馬遷	
56	境之勝客之秀妓之妙眞爲稀遇【多景樓】	采桑子潤州多景樓與孫巨源相遇序	蘇軾	
57	是醫國之說	藥戒	張耒	
58	祭之豐不如養之薄【永叔】	瀧岡阡表	歐陽脩	
59	歐陽子方夜讀書【秋聲賦】	秋聲賦	歐陽脩	秋聲賦2
60	以吾一翁老於此五物之間【永叔】	六一居士傳	歐陽脩	
61	山行六七里漸聞水聲潺潺【醉翁亭記】	醉翁亭記	歐陽脩	醉翁亭記6
62	曼卿隱於酒祕演隱於浮屠皆天下奇男子【永叔】	釋祕演詩集序	歐陽脩	
63	然後益天下壯觀【上樞密韓太尉書】	上樞密韓太尉書	蘇轍	
64	不可使士大夫不知此味亦不可使天下民有此色【畫菜贊】	題畫菜	黃庭堅	
65	願秉清忠節終身立聖朝【楊億】	喜朝京闕	楊億	
66	士大夫三日不讀書便覺義理不交胸中【黃山谷】	小窗幽記	黃庭堅	
67	因舊制設宰臣待漏院於丹鳳門之右	待漏院記	王禹偁	
68	設宰臣待漏院於丹鳳門之右示勤政	待漏院記	王禹偁	
69	棘寺小吏王某爲文請志院壁用規於執政者	待漏院記	王禹偁	
70	待漏之際相君其有思乎	待漏院記	王禹偁	
71	天道不言而品物亨歲功成	待漏院記	王禹偁	待漏院記5
72	手執周易一券【竹樓記】	黃岡竹樓記	王禹偁	
73	皆竹樓之所助也	黃岡竹樓記	王禹偁	
74	公退之暇焚香默坐笑貯妓女藏歌舞	黃岡竹樓記	王禹偁	黃岡竹樓記3
75	人影在地仰見明月	後赤壁賦	蘇軾	
76	日對古人法書名畫可撲面上三斗俗塵	小窗幽記	陳繼儒	
77	竹君石友庶幾近之【東坡】	寄題喻叔奇國傅郎	蘇軾	

		中園亭二十六咏竹岩		
78	謫下人間今八年【黃庭堅】	送人赴舉	黃庭堅	
79	晉無文章唯陶淵明歸去來兮辭	跋退之送李願序	蘇軾	
80	士大夫一日不讀書面目可憎言語無味	小窗幽記	陳繼儒	小窗幽記2
81	江山之外第見風帆沙鳥煙雲竹樹而已【進士金之淵二十首】	黃州竹樓記	王禹偁	金之淵 81~100
82	因作小樓二間與月波樓通	黃州竹樓記	王禹偁	黃州竹樓記5
83	赤壁舟中歌望美人曲	前赤壁賦	蘇軾	
84	相與枕藉乎舟中不知東方之既白	前赤壁賦	蘇軾	
85	登合江樓見海色忽籠喜三山爲蘇子浮來	前赤壁賦	蘇軾	前赤壁賦3
86	楚以屈原鳴	送孟郊東野序	韓愈	
87	清風一席送王子安【王勃事】	滕王閣序	王勃	
88	友人李愿居之【盤谷序】	送李愿歸盤谷序	韓愈	
89	送釋秘演往遊東南山水	釋秘演詩集序	歐陽修	
90	歐陽子方夜讀書聞聲自西南來	秋聲賦	歐陽修	秋聲賦3
91	妙妓乃唱梁州詞	聞金吾妓唱梁州	李頎	
92	朝出耕夜歸讀故人書	南野	戴叔倫	
93	竹石鍾山記嘆士大夫以小舟泊絕壁下	石鍾山記	蘇軾	
94	余友少時讀書於廬山五老峰下白石庵之僧舍	李氏山房藏書記	蘇軾	
95	春水般如天上坐【杜律】	小寒舟中作	杜甫	
96	南望靈壁之下歎鷄犬聲相聞	靈壁張氏園亭記	蘇軾	
97	醉翁之意不在酒	醉翁亭記	歐陽修	醉翁亭記7
98	夜深忽夢少年事	琵琶行 并序	白居易	
99	懸人董召生南隱居行義於其中	嗟哉董生行	韓愈	
100	登峴山亭讀羊公碑嘆人事代謝	與諸子登峴山	孟浩然	
101	豐西田舍笑阿季不在家	미상		
102	捲盡洛陽簾	미상		
103	魯城下猶聞絃誦之聲	資治通鑑·漢紀三	司馬光	
104	三太白	月下獨酌	李白	
105	傭者笑	史記·陳涉世家	司馬遷	
106	代童男童女問徐市去處	史記·秦始皇本紀	司馬遷	
107	立石東海上號【金維翰】	史記·秦始皇本紀	司馬遷	
108	雨中摘禾添	미상		

109	女耕田【金維翰】	女耕田行	戴叔倫	
110	三年不開花【尹泰東】	미상		
111	正扶蘇死說復清後死未暮	史記·秦始皇本紀	司馬遷	
112	移舟飲月坡上語平生所學出外之大致【李賢汲】	宿建德江	孟浩然	
113	伴苑【張光鎮】	미상		
114	遲之【尹修衡, 燕舟事】	史記·秦始皇本紀	司馬遷	
115	擊節謾秦王【禹瑑】	史記·秦始皇本紀	司馬遷	
116	提籠忘採葉	春閨思	張仲素	
117	歸故鄉【二上】	미상		古風
118	三公不換此江山	釣臺	戴復古	古風

<표 2>를 통해 수록된 작가와 작품의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金鏞 80首, 金之淵 20首, 金維翰 2首이며, 나머지 尹泰東, 李賢汲, 張光鎮, 尹修衡, 禹瑑이 각 1首, 작자 미상이 11首이다.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작품이 수록된 金鏞의 경우 첫 작품의 주에 “順興居金鏞八十首”라 명시하였는데, 순흥은 현재 경상북도 영주지역이다. 또한 김용 다음으로 많은 작품의 수록된 金之淵의 경우 “進士金之淵二十首”라는 주가 확인되는데, 進士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외 나머지 작가들 기록은 전무하다.¹¹⁾ 따라서 현재까지 편찬자와 수록된 작가와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김용의 거주지역을 고려했을 때, 『과부초』는 영남지역 문인들의 과시선집으로 추측되며, 대부분 작가의 인격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책은 시권 모음집인 科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¹²⁾

다음으로는 수록된 과시의 양상이다. 80수가 수록된 김용의 경우, 원작

11) 尹泰東(1848~1905)의 경우 高宗 28년(1891) 辛卯 式年試 진사에 입격한 기록이 확인되나 동일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12) 우등 답안 모음집에 대한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명편선집, 科作 등 단일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科作’이라 한 것은 1900년 전후에 편찬된 『규장각서목』에는 12책본 『科作』이라는 책이 등장하는데, 이 서목 상에서의 ‘科作’은 특정 시험이나 특정 해의 시험에서 우등한 試券을 등서한 경우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에 科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박현순(2021), 6~7쪽 참조.

품의 작가는 한유가 38개, 구양수 16개로 특정 작가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김지연의 경우는 한유 3개, 소식 5개, 구양수 3개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시제로 삼았다. 그 외 나머지 작품은 주로 『史記』와 같은 역사 사건을 시제로 삼았다. 이 밖에 杜甫의 「小寒食舟中作」, 張仲素의 「春閨思」 등 唐詩를 비롯하여 한유의 「青青水中蒲」와 같이 『古文眞寶』 前集의 운문도 시제로 삼은 경우도 보인다. 아울러 「豐西田舍笑阿季不在家」와 같이 구체적으로 원작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것도 보인다. 이 작품에서 「豐西」는 漢高祖의 고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풍산 오미리 인근의 옛 지명이기도 하다. 마침 이 지역은 풍산 김씨인 만송 김완섭(원소장자)의 출신지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문중 주도의 과시선집, 그리고 수록된 작가들도 문중과 관련될 수 있다는 등의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다.¹³⁾ 하지만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과부초』가 한유나 구양수와 같은 당송팔가의 산문을 시제로 삼은 작품을 수록하는 데 주력하였다는 것과, 이를 통해 『과부초』가 습작이나 문예적 취향을 목적으로 제작된 과시선집이라는 점이다.¹⁴⁾ 구체적인 작품으로 보자면 「醉翁亭記」가 7번, 「待漏院記」가 5번, 「平淮西碑」가 4번, 「南海神廟碑」가 3번, 「進學解」가 3번씩 詩化되었다. 특히 「취옹정기」와 「대루원기」는 김용, 김지연 모두 작품화하였다. 이 중에서 「취옹정기」는 빈도수와 수록된 작가의 균형을 고려했을 때 이 과시선집의 특징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취옹정기」를 시제로 삼은 작품을

13) 풍산 김씨 족보를 확인한 결과 金鏞은 김완섭의 '섭' 항렬보다 2대 뒤의 사람으로 나오고 金之淵은 芝淵이나 志淵은 있어도 之淵은 확인되지 않는다.

14) 고려대 소장된 『株券』(만송D5 A87) 또한 비슷한 시기 제작된 영남문인 과시선집이다. 이 필사본에도 소식과 구양수의 작품을 시제로 삼은 것이 확인된다. 특히 「醉翁亭記」를 시제 삼은 「寓之酒」와 「醉翁之意不在酒」를 이 필사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외 과시는 대부분이 역사서나 경서를 시제로 삼았다.

중심으로 『과부초』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3. 『醉翁亭記』의 科詩化 양상

과시는 엄격한 정형성이 폐단으로 지적될 만큼 형식주의적인 문체이다. 그럼에도 과시를 형식적 기교에만 제한하지 않고 詩想이나 意境을 드러내는 훈련의 수단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¹⁵⁾ 이러한 점은 조선후기 제작된 많은 과시선집에서 확인되기에, 모든 과시선집이 시험 목적으로만 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과부초』 또한 시험에만 한정되지 않고 습작이나 문예적 취향이 고려되는 만큼, 이 책의 성격을 究明하기 위해서는 과시의 平仄, 句數, 入題나 鋪置形式과 같은 형식적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과시는 원작품을 바탕으로 작가 주관에 따라 내용을 재구성하게 되므로, 작가 따라 그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지, 그 내용적 측면 또한 고려해야 한다. 물론 과시는 형식과 내용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므로 분리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면모가 있지만, 이 글의 목적인 『과부초』의 성격뿐만 아니라 영남 문인의 과시 창작 과정과 그 실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내용적 측면을 형식과 분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과부초』에서 구양수의 『취옹정기』를 科詩化한 작품 전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申光洙는 『近藝雋選序』에서 ‘音節鏗鏘, 意味新巧, 模寫之工, 裁製之能.’이라 하였는데, 음절·의미·묘사·체재에 주목하여 과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인위적인 표현 기교를 넘어 시인의 자연스러운 意境을 드러내는 훈련으로써 그 가치를 바라보고 있어, 과시를 시험 목적으로만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경(2021), 180쪽.

<표 3> 「醉翁亭記」대상 科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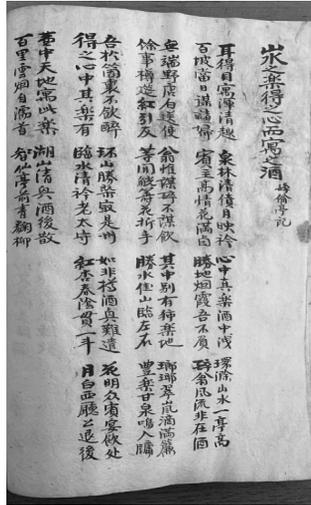
연번	제목	작가	형식	비고
44	山水之樂得之心而寓之酒 【醉翁亭記】	金鏞	7言14句	原用
45	朝而往暮而歸四時之景不同而樂亦無窮	金鏞	7言14句	原用
46	太守與客來飲于此	金鏞	7言15句	原用
49	環滁皆山	金鏞	7言14句	原用
53	醉翁亭記名字如八疊屏風美人出	金鏞	7言15句	變用
61	山行六七里漸聞水聲潺潺 【醉翁亭記】	金鏞	7言15句	原用
97	醉翁之意不在酒	金之淵	7言18句	原用

위의 표 제목에서 보듯이 53번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은 「취옹정기」의 구절을 原用하였다. 7개 작품을 내용적 측면에서 보자면 ‘뛰어난 풍경’과 ‘흥취를 의탁한 술’로 구분된다. 특히 44번 「山水之樂得之心而寓之酒」과 97번 「醉翁之意不在酒」는 구양수의 진정한 즐거움이 술이 아닌 山水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주제 의식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다른 작가이더라도 동일한 주제 의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두 작품을 중심으로 비교·대조하되, 「山水之樂得之心而寓之酒」의 분석에서는 김용의 다른 작품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형식적 측면

1) 金鏞의 「山水之樂得之心而寓之酒」

44번 「산수의 즐거움을 마음에 얻어 술에 붙인 것이다[山水之樂得之心而寓之酒]」의 평측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山水之樂得之心而寓之酒

耳得日寓渾清趣, 百坡當日謀諸婦. ●●●●●○●○, ●○○●○○○●.
 泉林清債月映衿, 賓主高情花滿占. ○○○●●●○, ○●○○○○●●.
 心中真樂酒中洩, 勝地煙霞吾不負. ○○○●●○○, ○●○○○○●●.
 環滁山水一亭高, 醉翁風流非在酒. ○○○●●○○, ●○○○○●●.
 無端野店白送使, 餘事樽筵紅引友. ○○●●●●●, ○●○○○○●●.
 翁惟謀醉不謀飲, 等閒觥籌花折手. ○○○●●○○, ●○●○○○●●.
 其中別有獨樂地, 勝水佳山臨左右. ○○○●●●●, ○●○○○●●.
 瑯琊翠嵐滴滿簾, 豐樂甘泉鳴入牖. ○○●○○●○, ●●○○○○●●.
 吾於箇裏不飲醉, 得之心中其樂有. ○○●●●●●, ●○○○○●●.
 環山勝槩最是州, 臨水清矜老太守. ○○●●●○○, ○●○○●●●.
 如非樽酒興難遣, 紅杏春陰貫一斗. ○○○●○●○, ○●○○●●●.
 花明衆賓宴飲處, 月白西廳公退後. ○○●○○●●, ●●○○○○●●.
 壺中天地寓此樂, 百里雲煙自濡首. ○○○●●●●, ●●○○●○○.
 湖山清興酒後散, 智仙亭前青麴柳. ○○○●●●●, ●○○○○●●.

과시의 평측은 李奎象(1727~1799)이나 呂圭亨(1849~1922)의 언급처

림 2~3字 평성과 축성을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⁶⁾ 구체적으로는 立題, 느낌, 回題를 제외한 초구, 포두, 첫목, 두목, 세목, 넷목, 결련과 받침은 ○○●●○○○-●●○○○●○으로 짜고, 입제, 느낌, 회제는 ○○○●●○○-●●○○○●○으로 짜야 한다.¹⁷⁾ 물론 과시에는 古詩體, 行詩體, 排律體가 공존하지만¹⁸⁾, 이 작품은 과시의 구법이라고 알려진 이평삼축이나 이축삼평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의미 단위는 4·3으로 끊어지며 운자를 유지하고 있기에, 과시보다는 古詩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양상은 김용의 5편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다음으로는 句數와 鋪置 측면에서 살펴보자.¹⁹⁾

	명칭	본문	번역
제1구	破題, 初句	耳得目萬潭清趣, 百坡當日謀諸婦.	귀와 눈에는 온통 맑은 정취라, 소동과는 당일애 아내와 상의하였네.
제2구	對聯, 初句받침	泉林清債月映衿, 賓主高情花滿卣.	산천의 맑은 경관속 달은 옷깃을 비추니, 主客의 깊은 정애 꽃이 술통에 가득하네.
제3구	立題(入題), 本身	心中眞樂酒中洩, 勝地煙霞吾不負.	마음속 진정한 즐거움 술에서 나오나, 빼어난 경관은 내 저버릴 수 없네.
제4구	鋪頭, 元題	環滁山水一亭高, 醉翁風流非在酒.	滁州를 두른 山水에 정자 하나 우뚝하니, 醉翁의 풍류는 술에 있지 않다네.
제5구	對聯, 鋪頭받침	無端野店白送使, 餘事樽筵紅引友.	공연히 촌 주막에는 대낮애 심부름꾼 보내고, 흔한 술자리에선 얼굴 붉어져 벗을 이끄네.
제6구	對聯, 鋪頭느림	翁惟謀醉不謀飲, ...	취옹은 취하고자 할 뿐 마실 뜻 없는지라,

16) 李奎象, 『竝世才彥錄』. “科詩法, 內句上二字, 必平聲, 外句上二字, 必去仄聲, 古調不用此法.” 呂圭亨 “二平三仄, 二仄三平.”

17) 심경호(2021), 219~220쪽 참조.

18) 장유승(2013), 426~427쪽; 이상욱(2005), 34~35쪽 참조.

19) 구수와 포치의 일정한 형식은 16세기 중반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李晔光, 『芝峯類說』 卷8, 「文章部」. “文體條, 我國科舉之文, 其弊甚矣. 四六冗長, 全似行文, 所爲行文, 又似公事場文字. 詩賦有入題鋪敘回題等式, 尤與文章家體樣全別, 雖得決科, 遂爲不文之人, 何以致用於世乎? 必大變機軸而後可矣.” 이하 포치방식 및 역할은 이병혁(1986, 62~67쪽), 이상욱(2005, 40~54쪽), 金東錫(2008, 79~80쪽)의 연구를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等閒觥籌花折手.	술잔을 내버려 두고 꽃을 꺾네.
제7구	初項	其中別有獨樂地, 勝水佳山臨左右.	그 속에 별천지가 있으니, 빼어난 경관이 좌우에 있다네.
제8구	對聯, 初項받침	瑯琊翠嵐滴滿簾, 豐樂甘泉鳴入甌.	낭야산 푸른 빛 주렴을 가득 적시고, 풍악산 맑은 샘 소리 장으로 들려오네.
제9구	對聯, 初項느림	吾於箇裏不飲醉, 得之心中其樂有.	나는 그 속에서 마시고 취하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즐거움 일어나네.
제10구	二項	環山勝槩最是州, 臨水清衿老太守.	산을 두른 빼어난 경관은 이 고을이 최고요, 물을 굽어보는 맑은 회포는 늙은 태수네.
제11구	對聯, 二項받침	如非樽酒興難遣, 紅杏春陰貫一斗.	술이 아니면 흥을 풀기 어려우니, 붉은 살구꽃 핀 봄날에 술 한 말 마시네.
제12구	對聯, 二項느림	花明衆賓宴飲處, 月白西廳公退後.	만발한 꽃에 객들이 마시고 놀던 곳, 달이 서청을 비추니 공무에서 물러난 뒤라네.
제13구	回下	壺中天地寓此樂, 百里雲煙自濡首.	항아리 속 별천지에 이 즐거움 부치고, 백리의 雲霧에 절로 만취하네.
제14구	回下	湖山清興酒後散, 智仙亭前青麴柳.	산수의 맑은 흥취 술 마신 뒤 흩어나, 智仙의 정자 앞에는 좋은 술 모이네.

과시는 내용상 3句를 한 단락으로 구성한다. 첫째 단락의 1구와 2구는 破題의 역할을 하는데, 주로 제목을 설명한다. 1구에서는 제목에서 취옹이 산수에 대한 즐거움을 술의 의탁한 것에 대해 蘇軾의 『赤壁賦』를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2구는 1구에 대한 추가설명에 해당한다. 『醉翁亭記』의 “太守與客，來飲于此。”라는 구절에 작자인 김용의 주관을 더 해 회화적으로 묘사하였고, 이를 대우로 구성하였다. 3구는 立題로, 향후 서술 초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는 취옹의 진정한 즐거움은 산수에 있으며 이를 술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단락에서 4구인 鋪頭는 제목의 내용을 펼쳐지는 첫 부분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본격적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이전 단락에서 설정한 산수에 대한 즐거움과 취옹의 진정한 즐거움을 文面에 드러내었다. 또한 題目 중에서 한 자를 韻字로 정하고 이를 포두에 가서 그 글자를 운자로 써야 하는데, 이 작품에서 해당하는 글자는 ‘醉’로, 제목에 있는 한

자를 사용하였다.²⁰⁾ 5구는 내용상 포두를 보충하거나 부연하면서 대우로 구성되는데, 구절 전체를 “無端-野店-白-送使, 餘事-樽筵-紅-引友.”에서 보듯이 대우로 설정하면서 술자리에 대해 부연하였다. 6구의 역할은 4·5구의 내용을 다음 구로 이어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취옹의 원뜻은 술에 있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셋째 단락에서 7구는 初項이라 하여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는데, 취옹정 인근 빼어난 경관이 별천지라 말하고 있다. 8구는 다시 “瑯琊-翠嵐-滴滿-簾, 豐樂-甘泉-鳴入-牖.”에서 보듯이 대우를 이용하였고, 9구는 8구와 함께 앞선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넷째 단락인 10구는 二項으로 셋째 단락에서의 서술된 내용을 기반으로 주제가 반영된 부분이다. 10구는 빼어난 경관과 이를 즐길 줄 아는 태수에 대해 말하였고, 11구는 그러한 흥을 풀어내기 위해 술 마시는 상황을 서술하였으며, 12구에서는 그 술자리가 끝난 뒤의 상황으로 마무리하였다. 13구부터는 回下로 앞의 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 주로 이 부분은 이전 내용을 바탕으로 많은 시구를 계속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다. 이 작품에서는 13·14구를 통해 작품 주지를 강화하며 마무리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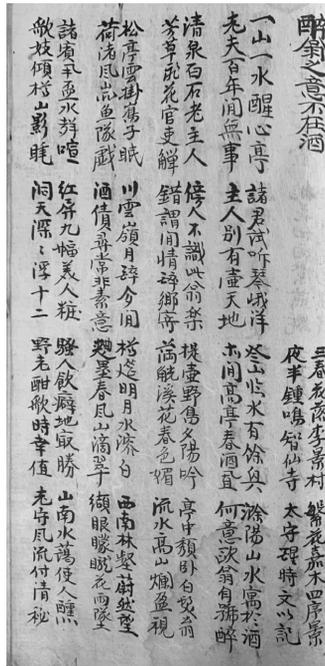
이 작품은 18구까지 서술하는 일반적 과시와 달리 14구로 마무리하였기에 ‘三項-三項받침-三項느림’과 ‘四項-四項받침-四項느림’이 생략된 형식이므로, 回下부분은 일반 과시보다 축약된 양상을 보인다. 『과부초』에 수록된 김용의 작품 대부분이 15구 이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句數는 의도적인 작법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과시는 원출전의 내용과 詩想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원작자의 심정을 대변하기도 하는데,

20) 이 책에 수록된 과시 대부분은 鋪頭 형식을 유지하였다. 『취옹정기』를 변주한 작품에서는 61번인 「山行六七里漸聞水聲潺潺」의 4구에서는 “箇箇森羅玉參出, 叢叢巧削金芙蓉.”이라 하여 이 작품만 형식을 지키지 않았다.

『山水之樂得之心而寓之酒』에서는 3구와 9구에 ‘꿈’와 같은 1인칭 시어를 활용하여 구양수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김용의 다른 작품에서는 이와 같은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2) 金之淵의 「醉翁之意不在酒」

97번 「취옹의 뜻은 술에 있지 않고[醉翁之意不在酒]」의 평측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醉翁之意不在酒

- 一山一水醒心亭, 老夫百年間無事. ●○○●○○○, ●○○○○●●.
- 諸君試聽琴峨洋, 主人別有壺天地. ○○●○○○○, ●●●○○○●.
- 登山臨水有餘興, 等閑高亭春酒置. ○○●●●○○, ●○○○○●●.

滌陽山水寓於酒, 何意歐翁自號醉. ○○○●●○○●, ○●●○○●●●.
 清泉白石老主人, 芳草飛花官吏解. ○○○●●●●●, ○●○○○○●○.
 傍人不識此翁樂, 錯謂閒情醉鄉寄. ●○○●●●○○, ●●●○○○○●.
 提壺野鳥夕陽吟, 滿觥溪花春色媚. ○○●●●○○○, ●○○○○○○●●.
 亭中頽臥白髮翁, 流水高山爛盈視. ○○○●●●○○, ○●○○○○●●●.
 松亭雲掛寫子眠, 荷渚風嵐魚隊戲. ○○○●●●○○, ●○○○○○○●○.
 川雲嶺月醉夢閒, 酒債尋常非素意. ○○●●●●●○, ●●○○○○●●●.
 樽筵明月水溶白, 麴墨春風山適醉. ○○○●●●○○, ●●○○○○●●●.
 西南林壑蔚然望, 纈眼矇矓花雨墜. ○○○●●○○○, ●●○○○○●●●.
 諸賓卍盃水聲喧, 歌妓傾樽山影眊. ○○●○○●○○, ○●○○○○●●●.
 紅屏九幅美人粧, 洞天深深浮十二. ○●●●●○○○, ●○○○○○○●●.
 騷人飲癖地最勝, 野老酣歌時幸值. ○○●●●●●○, ●●○○○○●●●.
 山南水蕩使人醺, 老守風流付清秘. ○○●●●○○○, ●●○○○○●●●.
 三春花落李景村, 夜半鍾鳴智仙寺. ○○○●●●○○, ●●○○○○●●●.
 繁花嘉木四序景, 太守醒時文以記. ○○○●●●●●, ●●●○○○○●.

이 작품 또한 과시의 구법이라고 알려진 이평삼축이나 이측삼평을 엄격하게 유지하지 않았다. 다만, 9구부터는 과시의 평측을 유지하려는 의도성이 확인된다. 다음으로는 구수와 포치이다.

	명칭	본문	번역
제1구	破題, 初句	一山一水醒心亭, 老夫百年間無事	하나의 산과 하나의 샘의醒心亭, 늙은이 평생 일없이 한가롭네.
제2구	對聯, 初句받침	諸君試聽琴峨洋, 主人別有壺天地.	그대들은 峨洋한 거문고 소리 한번 들어보게, 주인은 별천지에 있다네.
제3구	立題(入題), 本身	登山臨水有餘興, 等閑高亭春酒置.	山水를 즐기고 여운이 남아, 높은 정자 버리고 술자리 마련하네.
제4구	鋪頭, 元題	滌陽山水寓於酒, 何意歐翁自號醉.	滌陽의 산수를 술에 붙이고, 스스로 醉翁이라 한 뜻은 무엇인가?
제5구	對聯, 鋪頭받침	清泉白石老主人, 芳草飛花官吏解.	좋은 샘과 돌에는 늙은 주인, 향초와 날리는 꽃에는 객들의 술잔.
제6구	對聯, 鋪頭느낌	傍人不識此翁樂,	주위 사람 취움의 즐거움 알지 못하고,

		錯謂閒情醉鄉寄.	閒情을 술에 붙였다고 하네.
제7구	初項	提壺野鳥夕陽吟, 滿觥溪花春色媚.	들새 우는 석양에 술병 들고서, 개울 꽃 어여쁜 봄빛에 술잔 채우네.
제8구	對聯, 初項받침	亭中頽臥白髮翁, 流水高山爛盈視.	정자에 드러누운 백발의 노인, 흐른 물과 높은 산을 마음껏 바라보네.
제9구	對聯, 初項느림	松亭雲掛寫子眠, 荷渚風嵐魚隊戲.	구름이 걸린 松亭에 학은 졸고, 바람 이는 물가에 물고기 떼 노니네.
제10구	二項	川雲嶺月醉夢間, 酒債尋常非素意.	냇가 구름 산마루 달에 꿈처럼 취하니, 술빚이 늘 있는 건 본뜻이 아니라네.
제11구	對聯, 二項받침	樽筵明月水溶白, 麴墨春風山適醉.	술자리 밝은 달에 흰 물결 이루고, 익은 술 봄바람에 산도 취하네.
제12구	對聯, 二項느림	西南水壑蔚然望, 纈眼矇矓花雨墜.	서남쪽 숲 골짜기 무성하여 바라보니, 취한 눈 몽롱하여 꽃비 떨어지네.
제13구	三項	諸賓卍盃水聲喧, 歌妓傾樽山影眊.	객들 술잔 들 때 물소리 더해지고, 기녀들 술등 기울 때 산 그림자 드리우네.
제14구	對聯, 三項받침	紅屏九幅美人粧, 洞天深深浮十二.	9폭 붉은 병풍에 미인 단장하고, 깊고 깊은 신선 세계 열두 골짜기에 떠 있네.
제15구	對聯, 三項느림	騷人飲癖地最勝, 野老酣歌時幸值.	시인 술버릇은 명승지에서 심해지니, 촌노 취해 부른 노래 마침 더해지네.
제16구	四項	山南水蕩使人醺, 老守風流付清秘.	山南의 넘실거리는 물 사람을 취하게 하나, 老守의 풍류는 맑은 비밀에 붙이네.
제17구	對聯, 四項받침	三春花落李景村, 夜半鍾鳴智仙寺.	늦봄에 꽃이 떨어지는 李景村, 한밤 종소리 울리는 智仙寺.
제18구	對聯, 四項느림	繁花嘉木四序景, 太守醒時文以記.	嘉木에 활짝 핀 꽃 사계절 따른 풍경이니, 태수는 취할 때마다 글로 기록했네.

먼저 구수는 18구로 과시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전체 구성상 4 단락이며 7구부터 項을 유지하는 포치 측면에서도 과시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1구와 2구는 破題이므로 제목이 설명되어야 한다. 金之淵은 「취옹정기」에서 취옹의 뜻은 술에 있지 않다는 부분을 詩化하였다. 이는 취옹의 진정한 즐거움은 술이 아닌 산수에 있다는 것으로, 앞서 거론한 김용의 작품과 주제 측면에서 동일하다. 김용의 경우 蘇軾의 작품을 인용함으로써 破題하였듯이, 김지연은 曾鞏의 「醒心亭記」를 인용하였다. 2구에서는 취옹과 객

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향유 양상을 대비적으로 표현하였다. 3구의 역할은 이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인데, 김지연은 취옹이 술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서술함으로써 이후 전개되는 내용을 예시하였다.

4구부터는 제목의 내용이 전개되는데, 작품에서는 구양수가 自號를 醉翁이라 한 이유를 반문하면서 ‘醉翁之意’에 대해 서술할 것을 표면화하였다. 아울러 제목의 글자를 운자로 사용하는 鋪頭의 형식에 의하여 압운자를 ‘醉’로 하였다. 5구는 대우로 구성되는데 ‘清泉-芳草, 白石-飛花, 老主人-官吏解’로 對를 이루며 4구에 대해 부연하였다. 6구는 취옹의 진정한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것을 통해 다음 구절과 연계하였다.

셋째 단락인 7구는 初項이라 하여 제목과 관련된 내용이 기술된다. 이 작품에서는 무르익어가는 술자리를 표현하였고, 8구와 9구에서는 대구를 활용하여 취옹이 산수를 한껏 즐기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넷째 단락은 주제가 반영되는 부분으로, 二項 10구인 ‘술빛이 늘 있는 건 본뜻이 아니라 네[酒債尋常非素意]’에서 보듯이 취옹의 본뜻이 술에 있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이후 취옹이 즐긴 산수에 대한 정경을 11구에서 묘사하였고, 12구에는 즐거움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표현하였다.

13구부터 18구까지는 三項과 四項에 해당하는데, 初項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구를 채워야 하는 부분이다. 13구에서는 술자리가 저녁까지 전개되는 과정을 묘사하였고, 14구에서는 그 정도를 신선 세계에 비유하였으며, 15구에서는 객과 취옹의 즐거움이 分岐되는 과정을, 16구에서는 마침내 취옹만의 즐거움을 묘사하였다. 17구에서는 모임을 끝난 텅 빈 취옹정 주변 경관을, 18구에서는 취옹의 즐거움이 한 계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절기에 따라 즐기는 것을 통해 진정으로 산수를 즐기는 모습으로 마무리하였다. 이처럼 「醉翁之意不在酒」는 철저하게 포치 형식에 따라 작품을 구성하였다. 다만, 1인칭에 해당하는 시어를 활용하여 원작자의 심정을 대변하기도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²¹⁾

지금까지 과시의 형식적 측면에서 두 작품을 살펴보았다. 평측에 있어서는 과시 형식에 벗어나 있지만, 이외인 자구나 포치에서는 유지하려는 면모가 확인된다. 특히 포치 형식은 『과부초』에 수록된 대부분 작품이 철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이들의 작품이 문예적 취향을 목적으로 창작되었다기보다는 진사시 초시의 성격을 지니는 陞補試나 公都會와 같은 초학자의 작품이거나, 혹은 科詩를 통해 세련된 표현이나 수법을 익히는 수련을 목적으로 창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山水之樂得之心而寓之酒」는 14구로 구성되어 있고, 「醉翁之意不在酒」는 1인칭 시어가 사용되지 않는 점에서 보듯이 『과부초』에 수록된 시들은 완전한 과시의 형식이 아닌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형식적인 측면에만 한정했을 때, 『과부초』의 수록된 시들은 과시의 작법이나 기법을 익히기 위해 연습 삼아 짓는 습작행태에 가깝다고 하겠다.

(2) 내용적 측면

「취옹정기」의 저자인 구양수는 우리나라에 문단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에 대한 기록은 『三國史記』에서부터 확인되며, 고려시대 李奎報는 그의 문장에 탄복하였다고 한다.²²⁾ 조선 문인들도 구양수에 대한 평을 구체적으로 남겼으며²³⁾ 成宗은 그의 산문을 仁義禮樂의 주장을 밝힌 글

21) 김지연은 93번인 「竹石鍾山記嘆士大夫以小舟泊絕壁下」에서는 ‘儂’과 같은 1인칭 시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외 97번을 포함한 나머지는 19편에서는 이와 같은 양상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20편 전편에 걸쳐 18구로 구성하였고, 鋪頭 등에서 과시의 형식을 유지하였다.

22) 崔滋, 『補閑集』. “文順公曰, 余初見歐陽公集, 愛其富, 再見得佳處, 至於三拱手嘆服.”

23) 金昌協, 『農岩集』 卷34, 「雜識·外篇」. “韓格正而力大, 歐調逸而機圓.” “韓文鼓舞, 讀之使人氣作, 歐文詠歎, 讀之使人心醉.” “韓本尚書左氏之法, 歐得風騷太史之旨.” “以國風離騷之旨爲文章, 唯歐公爲然. 或曰如豐樂亭峴山亭記之類是否? 曰近之然不獨此也. 他文大抵皆然, 觀其反復詠歎處即是.” 洪奭周, 『淵泉全書』

이라 하면서 국가 통치에 필요한 면을 부각하기도 하였다.²⁴⁾ 특히 「취옹정기」와 관련해서 英祖는 도승지 趙明履에게 구양수의 「秋聲賦」와 「醉翁亭記」를 읽게 하고 이 글을 絶作이자, 이른바 글 가운데의 그림이라는 것이지만 결국 말세의 글이라 하였다.²⁵⁾ 正祖는 誠正閣에서 유생의 製述에 「취옹정기」를 시제로 삼았고,²⁶⁾ 純祖는 승지 및 閣臣들에게 「취옹정기」의 구절을 試題로 삼아 賦를 짓게 하였다.²⁷⁾ 이처럼 구양수와 그리고 그의 「취옹정기」는 문인에서부터 통치자, 그리고 국가시험에서도 출제될 만큼 그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러한 「취옹정기」는 구양수가 40세에 滁州를 다스릴 때 그 즐거움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記리는 문체를 통해 與民同樂이라는 주제 의식을 담고 있다. 또한 구양수는 自號가 ‘醉翁’인 이유를 설명하면서 취옹의 뜻이 술에 있지 않고 “산수의 즐거움을 마음으로 터득하여 술에 의탁한 것이다.[山水之樂, 得之心而寓之酒也.]”라고 하였으며, 작품 마지막 구절인 “사람들은 모두 태수를 따라서 놀고 즐거워할 줄은 알아도, 태수가 모든

卷3, 「題四家文鈔」, “廬陵之文, 悠揚如雅瑟.” 徐應淳, 『綱堂書』卷2, 「論文與李近章」, “紆徐敦厚.” 韓章錫, 『眉山集』卷10, 「讀昌黎」, “韓之文崛奇而雄深, 歐陽則以迥麗平婉勝.” 林泳(1649~1696)은 「취옹정기」를 詩로 변주하였다. 『滄溪集』卷2, 「叢巖閑居取東坡書醉翁亭記集字爲詩」.

- 24) 『成宗實錄』 289권, 25년 4월 12일 1번째 기사. “韓文起八代之衰, 歐文著仁義禮樂之說, 後世之人, 果皆不能爲古文歟?”
- 25) 『英祖實錄』 80卷, 29년 10월 9일 2번째 기사. “內局入侍, 命都承旨趙明履讀歐陽脩秋聲賦·醉翁亭記, 上曰, 此文皆絶作矣, 是所謂文中之畫, 然終是末世之文.” 『승정원일기』 1099책, 「영조 29년 10월 9일」, “上命取古文眞寶秋聲賦所付卷, 命明履展讀秋聲賦. 上曰, 近來秋夜漸長, 每當雲河皎潔, 星月昭回之時, 出步階庭而思之, 則歐陽脩秋聲賦, 可謂善形容矣. 明履曰, 然矣. 上曰, 醉翁亭記亦好矣. 明履曰, 醉翁亭記即古文中別格, 古人亦以爲如畫圖矣.” 특히 영조대 「취옹정기」와 관련된 기사가 많이 확인된다.
- 26) 『日省錄』, 정조 13년(1789) 12월 16일 기사. “御題醉翁亭上梁文, 尹永儀以三中一居首.”
- 27) 승정원일기 2111책 (탈초본 109책) 순조 19년 3월 25일 정사 26/26 기사. “上曰, 右承旨及閣臣, 以醉翁亭記中, 蒼顏白髮頹然乎其間爲題, 製賦以進, 可也.”

이들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것은 알지 못하리라.[人知從太守遊而樂而不知太守之樂其樂也]”는 기술에서 自號의 의미도 확인할 수 있다.

『과부초』에서 「취옹정기」를 科詩化한 작품들은 주로 同樂보다는 ‘취옹의 즐거움’인 自號의 의미에 집중되어있다. 다만 그 즐거움은 ‘醉’에 있는데, ‘醉’의 대상은 자연과 술로 이분된다.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거론한 「山水之樂得之心而寓之酒」와 「醉翁之意不在酒」는 취옹의 진정한 즐거움이 술에 있지 않고 자연에 있으며, 이를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한다는 부분에 주목하였고, 「취옹정기」 구절을 原用하여 시제로 삼았다. 또한 구양수가 자신의 지향점을 의탁한 수단으로써 술을 거론한 점도 동일하다.

앞서 破題에서 보듯이 「山水之樂得之心而寓之酒」는 蘇軾의 작품과 「醉翁之意不在酒」는 曾鞏의 작품과 연계하면서 시상을 전개하였다. 먼저 「山水之樂得之心而寓之酒」의 작가인 金鑄은 46번인 「태수가 객과 더불어 이곳에 와서 술을 마실 적에[太守與客來飲于此]」라는 작품에서도 소식의 작품을 통해 과제하였다.²⁸⁾ 구양수의 「취옹정기」와 소식의 「적벽부」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문자를 응용하여 작품의 흥취를 풍부하게 한 것은 과시뿐만 아니라 한문학에서 보편적이라 할 만큼 이전 시기부터 여러 문인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²⁹⁾ 다만 김용의 경우 「적벽부」뿐만 아니라 소식의 「與胡祠部游法華山」과 같은 작품을 連用하여 취옹의 진정한 즐거움을 술에 의탁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였다.

「醉翁之意不在酒」에서는 曾鞏의 「醒心亭記」를 인용하여 과제하였다. 「성심정기」에서 증공은 구양수의 진정한 즐거움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마땅함을 얻는 것[皆得其宜]이라 하면서 이를 하나의 산과 하나의 샘에 불

28) 『科賦抄』 46쪽, 「太守與客來飲于此」. “赤壁七月風月清, 百坡有酒兼簫客.”

29) 조선전기 成俔의 「浮碧樓記」에서부터 조선후기 朴趾源의 「熱河日記」에 이르기까지 특정시기 및 장르 및 작가에 국한되지 않고 두 작품은 연계하여 사용되었다.

인 것이라 하였다. 이는 구양수의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측면에서 이 작품의 주제의식과 공유되므로, 김지연은 이러한 점을 전고로 활용한 것이다. 게다가 「성심정기」는 구양수가 滁州知州로 부임한 다음 해에 豐樂亭을 짓고 또 풍락정의 동쪽으로 백 보 정도 떨어진 지점에 정자를 지어 醒心亭이라 명명하고서 증공에게 쓰게 한 글이므로, 저작 배경에서도 취옹정 및 구양수와 연계되어 있다. 아울러 知音의 고사를 활용하여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의미와 峨峨한 태산, 洋洋한 江河처럼 멋진 산수가 더해졌다는 의미를 중의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두 작품 모두 시상 전개에 있어 전고를 활용하였다는 점인데, 일반적으로 전고는 짧은 시구에 풍부한 시상을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작가의 생각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과시에서는 이 방식이 더욱 유효하다. 왜냐하면 엄격한 형식은 창작에 제한을 가한 것이지만, 科詩는 선발이 목적이므로, 엄격한 형식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최대한 펼치면서 동시에 세련된 표현으로 구현해야만 선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선후기 과시의 대표작인 「登岳陽樓歎關山戎馬」의 경우 원제가 杜甫 고사였고, 申光洙는 이 시의 전편을 거의 두보의 시로 集句하였다. 그럼에도 斧鑿의 흔적 없이 자신의 시상으로 전개하였기에 우수한 성적을 받았고 인구에 회자되었다.³⁰⁾

「山水之樂得之心而寓之酒」와 「醉翁之意不在酒」에서 파제 부분인 1단락을 제외한 나머지 구절에서는 거의 전고를 사용하지 않았으며,³¹⁾ 나머지 5편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취옹정기」를 과시화하면서 기존의 작품에다 자신의 시상을 접목하는 과정에서 전고를 활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증공이나 소식과 같이 서로가 연계되는 당송팔가

30) 이러한 점을 과시의 문학성으로 보기도 한다. 남궁원(2003), 187쪽.

31) 「醉翁之意不在酒」의 17구에서는 張繼의 「楓橋夜泊」을 시구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산문의 구절을 전고로 활용함으로써 한시에서의 세련된 표현이나 詩想을 구성하는 데에 활용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예적 취향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과시가 고사나 명구를 활용하여 시 전체를 집구해야 하는데, 그 활용이 과제 부분에만 제한되었다는 점은 이들 작품이 수련 목적으로 창작한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면모는 시상 전개 과정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詩課』나 『泮庠科詩集』에서 보듯이 조선후기 入格한 과시들은 대부분 기승전결로 시상을 전개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기준에서 먼저 『山水之樂得之心而寓之酒』를 살펴보면, 동일한 시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詩想도 내용이 전개될수록 확장되기보다는 같은 이미지가 반복되는 양상이다. 무엇보다 취옹의 풍류는 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거듭 서술하였는데, 두 번째 단락뿐만 아니라 세 번째 단락인 9구에서도 “吾於箇裏不飲醉，得之心中其樂有。”라 하여 비슷한 의미가 반복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보다는 「취옹정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시 서술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를 통해 본다면 이 작품의 시상은 전개될수록 확장되기보다는 반복되므로 「취옹정기」를 부연 설명하는 성격에 가깝다. 아울러 자신의 입장으로 구성한 것은 3구에서 “心中眞樂酒中洩，勝地煙霞吾不負。”라 하였고 9구에서도 확인되듯이, 김용은 구양수의 입장에서 마음속에 있는 眞樂이 술을 통해 흘러나온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 같은 표현은 작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지만, 그 설정이 시상 전개와 동떨어져 있으며 詩題만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醉翁之意不在酒」의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3구의 “登山臨水有餘興，等閑高亭春酒置。”이다. 즉 취옹이 술자리를 마련한 것은 자연을 즐긴 뒤 餘興 때문임을 명시하였다. 이는 애초 목적이 술이 아니라 자연경관을 즐기는 데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둘째 단락에서 그 연유와 배경을 표현하였다.

즉 첫 단락의 시상을 발판으로 확장된 면모를 보인다. 셋째 단락에서 다시 滁州의 자연풍광만을, 넷째 단락에서는 자연풍광에 술자리를 마련하는 내용만이 등장한다. 이는 앞서 자연풍광을 즐기고 그 여흥을 술자리로 이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자연의 정경과 취옹의 의도를 연계하는 것을 통해 주제 의식을 고조하였다. 다섯째 단락에서는 그 흥취가 仙界로 표현될 만큼 절정에 이르렀음을 나타내고 있고, 마지막 단락에서 유구한 시간 속에서 滁州, 醉翁亭, 醉翁의 모습을 나열함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주제 의식 설정, 이유, 다시 배경과 연유 설정을 통한 주지 강화 등에서 시상이 전개되는 과정과 구조를 갖추고 있다. 다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은 빠져 있는데, 철저히 취옹을 변호하려는 입장만이 반영되어 있다. 이에 김용의 작품에 비해 시상 전개에서는 구조성이 확인되지만, 자신의 심정을 작품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을 지닌다.

과시는 원작품을 바탕으로 작가 주관에 따라 내용을 재구성하게 되므로, 이 절에서는 작가 따라 그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지를 내용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거론된 작품은 시상 전개 측면에서 조선후기 科作 선집에 수록된 작품에 비해 수준이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앞서 형식적인 측면인 포치와 연계한다면, 集句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즉 형식에 급급한 나머지 자신의 시상을 자유롭게 담아내는 경지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4. 나가며

科詩는 19세기에 이르러 특정한 편집 의도를 지니지 않고 제작된 필사본 선집이 광범위하게 발견된다. 또한 응시생의 증가로 습작도 증가하였

다. 하지만 급제자는 극소수이기에 대부분 유생은 과시를 통해 자신의 지적 욕구나 문학적 재능을 표현하는 양식으로 사용되었다.³²⁾

이글에서 거론한 『과부초』도 이러한 자장 안에 있다. 다만 한 작가의 작품이 다수 확인되는데, 김용의 경우 80편이고, 김지연은 20편에 이른다. 또한 『과부초』는 수록된 대부분 작품이 『사기』와 같은 역사서가 아니라 『고문진보』의 산문이라는 점은 이 필사본이 습작을 넘어 문예적 향유를 목적으로 제작된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에 이 글에서는 『醉翁亭記』를 대상으로 한 작품에 한정하여 이들의 과시를 형식과 내용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평측을 제외한 압운과 포치 측면에서 철저하게 형식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 시상 전개 및 자기표현과 관련하여 조선후기 명작과 비교해 논의하였다. 그 결과 문예적 취향보다는 습작에 가깝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조선후기 많은 과시선집 필사본이 강한 저자 의식이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과부초』 또한 편집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특정 지역 문인의 과시를 선집하여 제작한 사실만으로도 공유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기에, 현재까지는 『과부초』의 편찬 목적을 습작에만 한정하기보다는 문예적 취향의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할 것이다.

조선시대 科擧는 시간과 지역을 넘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지방 유생의 경우 시험정보나 응시 기회에 있어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제술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습작하였고, 무엇을 참고하였는지 그 실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멍의 대상으로 남아있었다.

이에 『과부초』의 편찬 의도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취옹정기』를 시제화 한 작품을 통해 영남지역 과시 창작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과시선집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취옹정기』와 같은 『고문진보』에 수록된 작품을 통해 과시를 습작하였다는 것은 제술에

32) 이상욱(2005), 19쪽; 남궁원(2003), 218쪽 참조.

강세를 보였던 경화세족이나 도성 인근 유생에게 있어 특이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경시험에 집중하였던 향촌사회에서 예술과 관련된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조선후기 과시 창작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과부초』와 같은 과시선집을 통해 영남 문인의 과시 창작 경향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는 점 또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물론 『과부초』라는 책의 전모를 밝히는 동시에, 이를 향촌사회 유생들의 예술과 연계하여 조선후기 과거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면모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 과제로 남긴다.

◆ 참고문헌

- 『科賦初』,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近藝雋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泮庠科詩集』,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四書疑抄』,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
 『詩課』,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株券』,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강찬수, 「국내 『古文眞寶』의 연구 개황과 문제점 -刊行·受容·傳播와 그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39, 중국어문연구회, 2008.

김 경, 「朝鮮後期 南人系 科體詩集 『近藝雋選』 研究」, 『민족문화』57, 한국고전번역원, 2021.

金東錫, 「朝鮮時代 科體詩의 程式 考察」, 『대동한문학』28, 대동한문학회, 2008.

남궁원, 「조선시대 과제시의 문학적 탐구」, 『한문고전연구』7, 한국한문고전학회, 2003.

李炳赫, 「韓國科文研究-詩·賦를 中心으로」, 『師大論文集』13, 부산대학교 사범

- 대학, 1986.
- 박현순, 「조선후기 文科에 나타난 京鄕 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한국문화』5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 _____, 「조선후기 科文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 규장각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문, 2021.
- 심경호, 「『조선문학사』의 한문학 부문 서술에 관하여」, 『민족문학사연구』18, 민족문학사연구소, 2001.
- _____, 「과시, 반제 및 응제 자료의 편제 상황」, 『동양고전연구』80, 동양고전학회, 2020.
- _____, 「朝鮮의 科擧와 文字生活」, 『동아한학연구』15,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2021.
- 이상욱, 「조선 과제시의 글쓰기 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5.
- _____, 「조선 科文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5.
- 이지은, 「17~18세기 경상도 士族의 과거체험- <계암일록>과 <청대일기>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12.
- 장유승, 「조선시대 과제시 연구」, 『한국한시연구』11, 한국한시학회, 2003.
- 전경목, 「조선후기 지방유생들의 수학과 과거응시」, 『사학연구』88, 한국사학회, 2007.
- 최은주, 「일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영남지방 지식인과 과거시험의 형상화」, 『대동한문학』38, 대동한문학회, 2013.
- 한국국학진흥원·영남유교문화진흥원 엮음, 『慶北儒學人物志』(상·하), 영남사, 2008.

투고일 2021. 7. 31 심사시작일 2021. 8. 17 게재확정일 2021. 9. 10

Abstract

A Consideration on Writing of Poetry for the Civil Examination
of the Local Socie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Works Based on 『ChwiOngJeongGi(醉翁亭記)』
in 『GwaBuCho(科賦抄)』 -

Kim, Kyung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GwaBuCho(科賦抄)』 and understand the reality of poetry writing for the civil examination of the local socie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compiler of 『GwaBuCho(科賦抄)』 is unclear, but considering included authors and a holding institution, it is identified that 『GwaBuCho(科賦抄)』 is a collection of poetry for the civil examination in Yeongnam reg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characteristic of 『GwaBuCho(科賦抄)』 is that questions for the examination of the works were mostly from proeses of 『Gomunjinbo(古文眞寶)』. In order to confirm these characteristics, this study analyzes works based on OuyangXiu's 『ChwiOngJeongGi(醉翁亭記)』 by dividing into forms and contents. As a result, it confirms that 『GwaBuCho(科賦抄)』 is a collection for practicing writing rather than a book for a literary taste. However, the fact that this book selected poetry for the civil examination of intellectuals from the Yeongnam region shows a intention of sharing. Through this fact, the possibility of pursuing a literary taste also cannot be excluded. In addition, the fact that poetry was written based on a specific work such as 『ChwiOngJeongGi(醉翁亭記)』 in order to practice the civil examination shows the aspect related to JeSul(製述) of the local society, which usually focused on GangGyeong(講經).

Keywords GwaBuCho, Poetry for the Civil Examination, the Yeongnam Region, Collection of Poetry for the Civil Examination, ChwiOngJeongGi.

